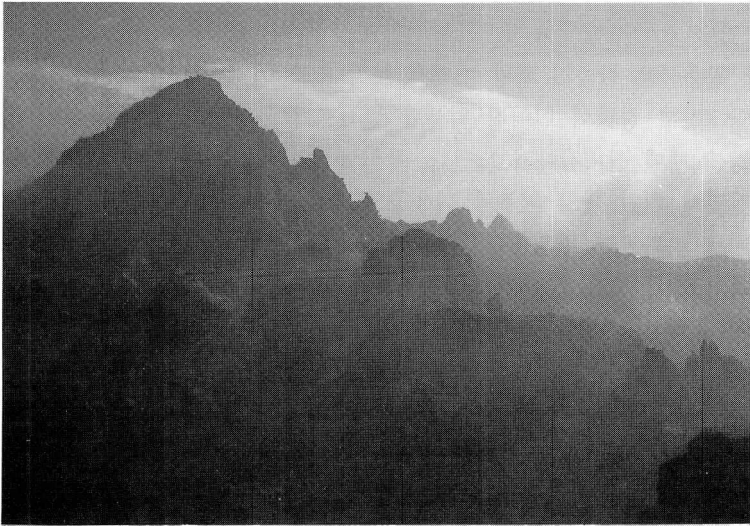


체력과 끈기를 확인해 볼 등반

월출산 (月出山)

위치 : 전남 영암군 군서면, 학산면, 강진군 성전면



국

립공원 월출산은 돌로 되어 있는 산세가 무척 빼어난 곳으로 유명하다. 높이는 해발 808.7km. 그 정상이 해안과 가까이 있어 맑은 날이면 다도해가 한눈에 들어 온다.

태백산맥에서 갈라진 소백산맥이 반도의 서남쪽으로 달려 내려가다가 그 끝에 불쑥 잔맥을 솟아올려 놓은 산이다. 전라평야의 영산강을 앞에 두고 무안반도와 목포시를 바라보며 늪름한 기암 괴석이 마치 창검을 늘어 세운 듯 그 장대한 기상이 위압감을 불러 일으킨다. 그러므로 예로부터 소금강이라 일컬어져 왔으며 신라 백제 때에는 월내산(月奈山), 고려 때는 월생산(月生山)이

함께가는 여행길 / 등산 코스 안내

라 했다가 조선조에 들어와 **월출산**이라 부르게 되었다. 남원의 지리산, 장흥의 천관산, 부안의 능가산(변산), 정읍의 내장산과 더불어 호남의 5대 명산으로 손꼽혀 왔다.

고 산 윤선도(尹善道)도 월출산의 아름다움에 노래를 읊었다. 신중식 곡 중에 <월출산이 높더니만은 미운 것이 안개로다. 천황 제일 봉은 일시에 가려 버렸구나, 두어라 해가 퍼진 뒤면 안개 아니 걸히랴>고 하였다. 이외에도 월출산을 두고 시를 쓴 사람은 고려 명종 때의 문인 김극기(金克己)를 비롯, 점필재, 김종직 등 예로부터 가히 명산으로서 추앙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.

실상 월출산은 산아래 사방 어디서 보거나 그 기묘하고 빼어난 모습은 보는 이를 압도하고 한없이 이어진 역새발 능선길에 올라 **구정봉**과 정상인 **천황봉**을 바라볼 때엔 신비감마저 느낀다. 특히 이름 그대로 달 밝은 밤에 월출산에 올라 달빛에 비친 기암 괴봉의 위용을 바라보는 멋이며 막 떠오르는 달을 암봉 사이로 바라보는 광경은 너무나 아름다워 두고두고 가슴 속에 아로새겨지는 추억의 장이 되기도 한다.

3월쯤 동백꽃이 잔설 속에 새빨갭게 피어 모습을 드러낼 때의 정경도 빼놓을 수 없는 광경이다.

백 출산국립공원은 1988년 한국에서는 열아홉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41.9 km²의 한국에서는 가장 작은 크기의 국립공원이다.

285년 [논어]와 [천자문]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가 일본의 아스카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한 학자, 백제의 **왕인박사**와 이 곳에서 불법을 크게 선양한 선승, 신라의 **도선국사**를 탄생시킨 곳이기도 하다.

< 등산 코스 안내 >

산 행 기점은 크게 **도갑사**, **금릉경포대**, **천황사**, **영암읍**, 이렇게 4군데로 잡을 수 있다. 그러나, 멀리서 모처럼 찾아 온 경우에는 대개 **천황사와 도갑사**를 잇는 **능선 종주 코스**를 시도하게 되고 이 코스를 여러번 다녀본 뒤에야 다른 코스를 계획하게 되므로 전자의 종주 코스 외에는 비교적 사람이 드물다.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코스를 다양하게 구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. 천황봉 정상 일대는 암벽이 가팔라서 눈비가 올 때에는 위험하고 이곳에 안개

가 잘 끼어 방향을 찾기 어려운 때가 있으니 지도와 나침반을 필히 지참할 것.

여기서는 천황사와 도갑사를 잇는 능선 종주 코스를 집중적으로 알아 본다.

먼저 **도갑사**에서 **미왕재** **구정봉** **천황봉**까지 이어지는 등산로가 있는데, 도갑사에는 국보 제50호인 해탈문과 석조여래좌상이 자리잡고 있다. 또한 대나무와 송림이 절 주위에 걸쳐 있어 여름에도 한기가 느껴질 정도다. 도갑사에서 월출산 쪽으로 가다 보면 역새밭이 하염없이 펼쳐져 있어 멋드러짐을 더한다.

그 다음 등산로는 **천황사** 입구에서 **천황사** **천황봉**으로 가는 길.

월출산이 자랑하는 빼어난 비경을 볼 수 있다.

천 황사에 도착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절의 이미지는 없고, 다만 조그마한 암자의 모습 뿐이다. **천황사**에서 **구름다리**까지는 가파른 등반 코스로 길이 52m의 철제 다리가 있으며, 길의 경사가 60 - 70 도를 육박하는 급경사를 이룬다.

신비에 가까운 바위들과 산을 곳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등반이었지만, 홀로 등반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산이다.

구름다리를 지나 월출산의 기암괴석을 구경하면서 1시간 정도 가면 **통천문**에 이른다.

통 천문은 조그마한 굴로 이 굴을 지나야 **천황봉**에 오를 수 있다. 이 굴을 지나면 시원한 바람과 함께 북서쪽 능선이 펼쳐지며 멀리 내려다 보이는 영암 고을과 영산강 물줄기가 한눈에 들어 온다.

통천문을 지나 10분 정도 가면 정상인 **천황봉**에 오를 수 있다. 넓다란 바위로 이루어진 **천황봉**에 서면 월출산 곳곳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서쪽으로는 확 트인 전남평야가, 동북쪽으로는 멀리 지리산이, 서쪽으로는 목포 앞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다.

가 장 일반적인 하산 코스인 **천황봉**에서 다시 **통천문**을 지나 **바람폭포**를 거쳐 **천황사** 입구로 하산하면서 이 고장 먹거리인 **촌닭**을 먹을 수 있다.

힘든 만큼 보람이 있는 산, 바위들의 빼어난 경치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자리 잡을 것이다.

등산 코스를 요약하면, **도갑사 - 갈대밭 - 구정봉(마애여래좌상) - 천황봉 - 구름다리 - 바람폭포 - 천황사 - 천황사 입구**이다.

산 코스를 거리와 시간으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.

함께가는 여행길 / 등산 코스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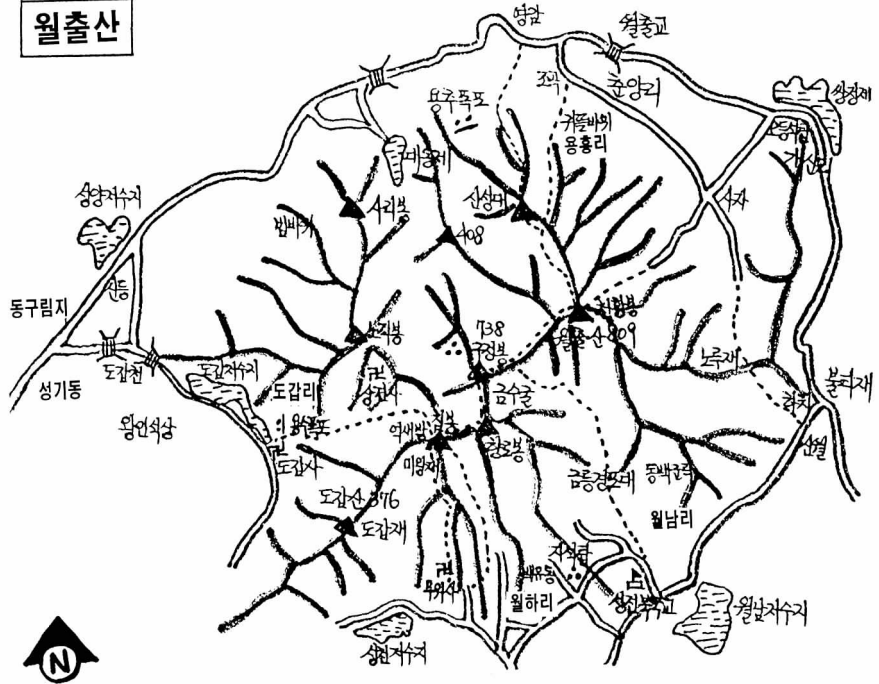
코스 제 1 코스 [10km, 4시간 20분]

친황사입구(1km, 30분) → 친황사(2km, 1시간 20분) → 친황봉(2km, 50분) → 구정봉(1.5km, 30분) → 미왕재(3.5km, 1시간 10분) → 도갑사

제 2 코스 [10.5km, 4시간]

영암(3.5km, 1시간 20분) → 산성대(1.5km, 50분) → 친황봉(1.5km, 35분) → 능선안부(2.5km, 50분) → 금릉경포대(1.5km, 25분) → 월남리

월출산



여행 정보

< 교통편 >

- ▣ 자가용 ... 호남고속도로 광산 IC → 13번 국도 → 송정리 → 나주시 → 영암읍 → 라이온스탑 삼거리 → 왼쪽 13번 국도 → 천황사 라이온스탑 삼거리 → 오른쪽 819번 지방도로 → 구림 사거리에서 좌회전 → 도갑사
- 버스 ... 서울(강남터미널) ~ 광주 (07:40~16:10, 2시간 간격, 4시간 30분 소요)
 광주 ~ 영암(06:00 ~21:30, 10분 간격, 1시간 소요)
 영암 ~ 군서면(07:00~20:30, 20분 간격, 10분 소요)
 ※ 영암~천황사는 성수기 때만 버스가 운행되므로 택시를 이용하면 된다.
 ※ 영암시외버스터미널 ☎ (0693) 73-3355~7

< 먹거리 >

월출산 주변에 토종닭과 메기 매운탕이 있다.
 구산리, 신학리에는 송어알을 염장 처리한 어란이 있고, 삼호면에는 여름철 별미, 짱뚱어탕이 있다.

< 관광지 >

주변 관광지로 왕인박사 유적지와 도갑사가 있다.
 약수가 흔치 않으므로 산행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식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.

※ 자동안내전화(ARS) : 134-1241~2